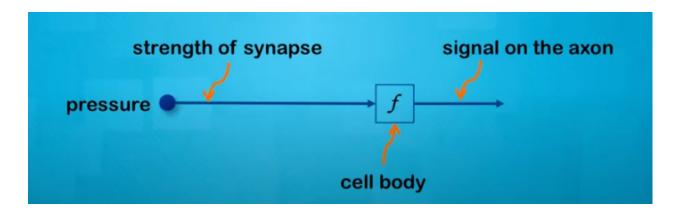


딥러닝 원리

Deep Learning - 사람의 신경망 구조를 모티브로 개발된 기계 학습 방법

사람의 신경망 구조 vs 인공신경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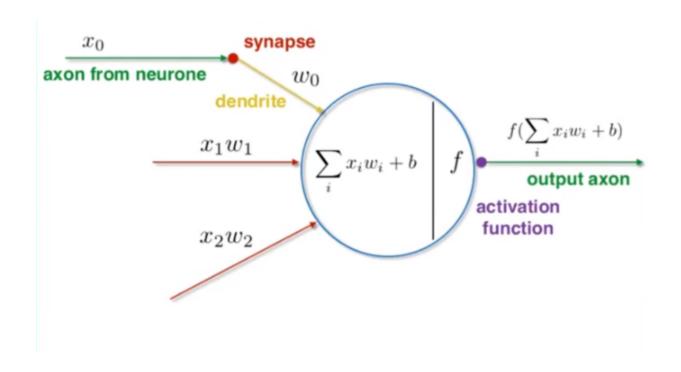


Pressure - 입력값 (x) - 변하지 않는 값

Strength of Synapse - 가중치 (w)

Cell body & Signal on the axon - 활성화 함수 (Activation function)

*한눈에 정리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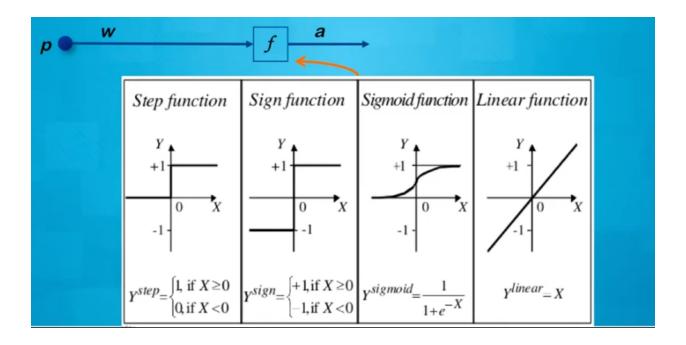


Activation Function - 활성화 함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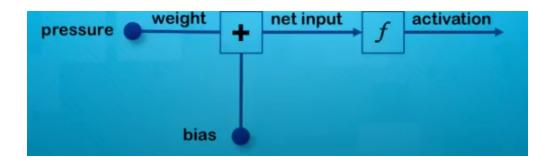
이진 활성화 함수 - Step Function, Sign Function (단점: 다중 출력이 불가)

선형 활성화 함수 - Linear Function (단점: 역전파 불가(선형 함수는 항상 상수가 나와 미분이 불가)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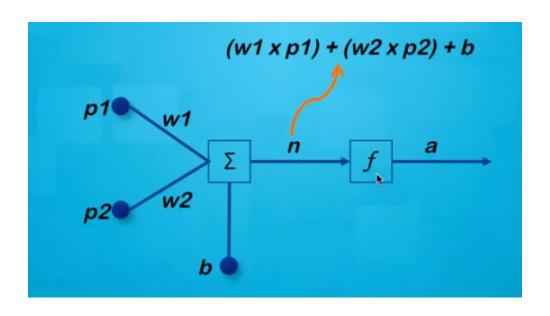
비선형 활성화 함수 - Sigmoid Function, Hyperbolic Tangent, ReLu (대체로 자주 사용되는 방법)



- *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 (자세한 내용을 알고 넘어갈 필요는 없음)
 - 데이터를 선형인 경우 수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비선형으로 바꾸기 위해 사용
- *Bias(편향)을 주는 이유 (활성화 함수를 거쳐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값을 조절하는 역할) 편향을 부여하지 않으면 Step Function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중치를 곱해주는 과정을 거치면 무조건 양수값이 나올수 밖에 없어 0 미만의 경우가 존재하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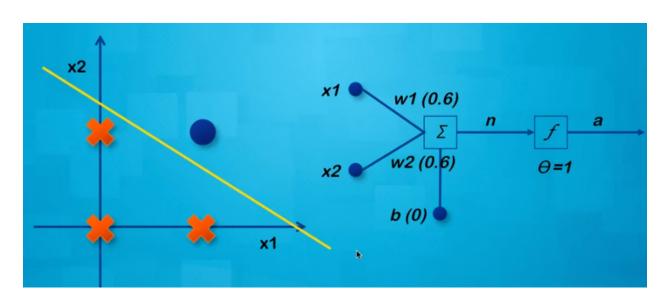


멀티 인풋 뉴런 - 퍼셉트론



비트 연산 - 복잡한 딥러닝 연산 과정을 가속화 시키기 위한 연산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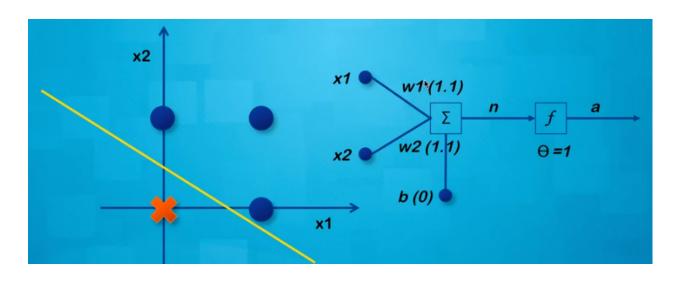
AND Operation (논리곱) - 모든 입력값이 1일때만 1을 출력



예제)
$$x1=0 \& x2=0 \to (0*0.6) + (0*0.6) = 0 < \theta \to 1$$

 $x1=0 \& x2=1 \to (0*0.6) + (1*0.6) = 0.6 < \theta \to 1$
 $x1=1 \& x2=1 \to (1*0.6) + (1*0.6) = 1.2 > \theta \to 1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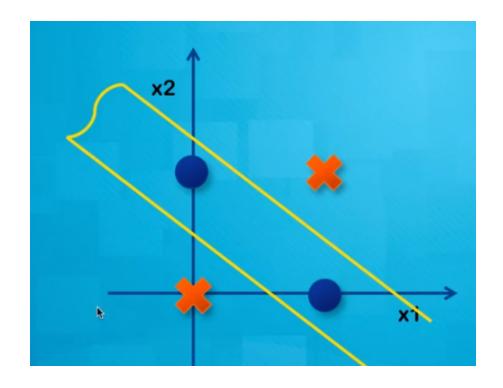
OR Operation (논리합) - 하나 이상의 입력값이 1이면 1을 출력



예제)
$$x1=0 \& x2=0 \rightarrow (0*1.1) + (0*1.1) = 0 < \theta \rightarrow 0$$

 $x1=0 \& x2=1 \rightarrow (0*1.1) + (1*1.1) = 1.1 > \theta \rightarrow 1$
 $x1=1 \& x2=1 \rightarrow (1*1.1) + (1*1.1) = 2.2 > \theta \rightarrow 1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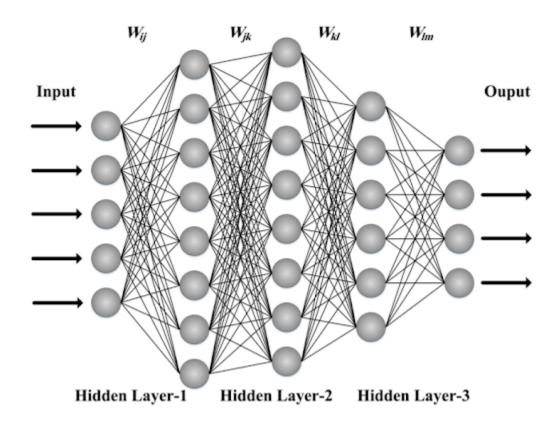
but,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?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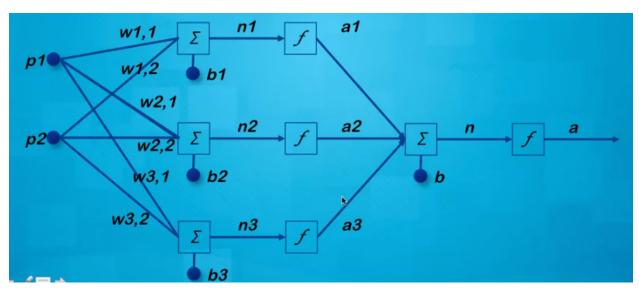


이처럼 기존의 퍼셉트론은 선형적인 문제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방법이다.

멀티 레이어 퍼셉트론(MLP) - 딥러닝의 시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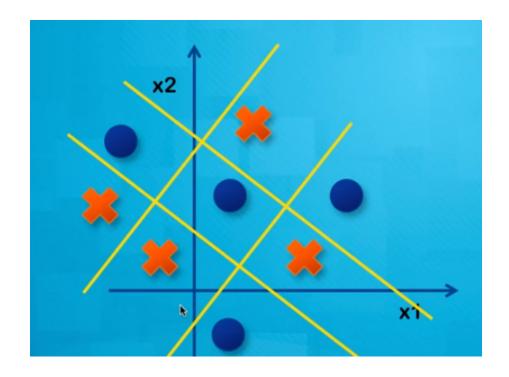
기본 구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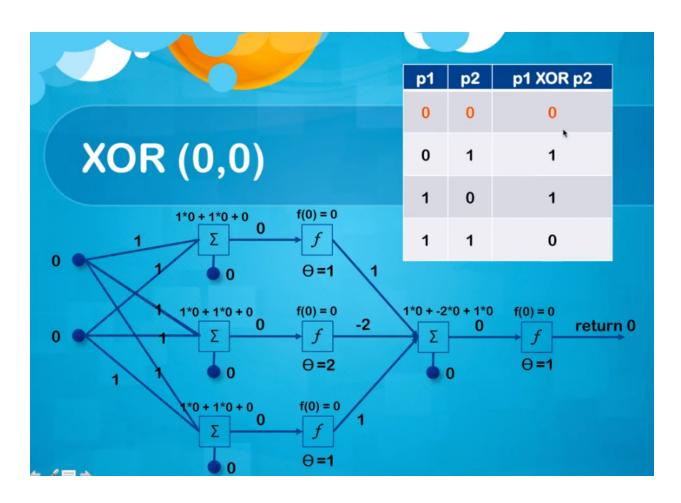




*간단하게 다중 퍼셉트론이라고 생각하면 되며 XOR 비트 연산을 기본으로 한다.

XOR Operation - 입력값이 같지 않으면 1을 출력한다.





$$\Rightarrow$$
 (0*1) = 0 < $\theta \rightarrow$ 0

$$\Rightarrow$$
 (0*-2) = 0 < θ \Rightarrow 0

$$\Rightarrow$$
 (0*1) = 0 < θ \Rightarrow 0

예제 2) x1=1 & x2=0

$$\Rightarrow$$
 (1*1) 1 = $\theta \rightarrow$ 1

최종 - 1 + 0 + 0 = 1 = 0 → 1